

KMI 북방물류리포트

VOL.216
MAY 6 2022

발간년월 2022년 5월 6일(통권 제216호) **주소**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발행인 김종덕 **총괄** 이주호 **감수** 최재선 **담당** 김엄지·유지원 **발행처** 한국해양수산개발원
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·극지전략연구실 **TEL** +82-51-797-4776 **FAX** +82-51-797-4659



주요 동향

- 러시아~중국 접경지역 철도 교량 완공
- P&G, 러시아 시장 판매가격 40% 인상
- 대러 제재, 러시아 미용 산업에도 영향
- 러시아, 컴퓨터 장치 부족 사태도 대비
- 러 건설 시장, 유럽 엘리베이터 공급 중단
- 조지아 포티, 흑해 대체 항만으로 뜬다.

주요 통계

- 2022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·액체화물)
 -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 -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
- * 러시아 극동지역 세관 홈페이지 접속 불가로 업데이트하지 못하였습니다.
세관의 홈페이지가 복구되는대로 게재하겠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
주요 동향



러시아~중국 접경지역 철도 교량 완공

그림. 니즈네레닌스코예~통장 연결교량



자료: <https://www.eastrussia.ru/news/zaversheno-stroitelstvo-zheleznodorozhnogo-mosta-v-kr/>

■ 유대인 자치구(니즈네레닌스코예)와 중국의 통장을 잇는 교량을 완공했음^{a)}

- 러시아와 중국 접경지역을 철도교로 연결하는 아무르 교량 건설사업은 2008년에 처음 시작되었음
- 철도 교량의 총 길이는 2,209m이며, 그중 309m는 러시아 영토에 속해 있는데, 러시아 직접 투자펀드(RDIF)와 러시아-중국투자펀드 등이 건설비용으로 90억 루블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
- 이 철도교는 지난 4월 27일 전체 교량 중 러시아 지역에서 첫 시범 운행에 들어갔는데, 올해 6월 완전 개통될 것으로 예상됨

■ 러시아 부총리는 교량이 러시아 교통로의 일부로 기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음

- 이 철도교량은 하루에 1,152개의 화차(wagon)가 통과할 수 있는데, 이 지역에서 나는 임산물, 청광석, 광물질 비료 등과 같은 화물이 연간 2,400만 톤 가량 운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- 이 교량이 완공되기 전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을 잇는 교통로의 경우, 도로나 철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 화물 운송에 애로가 많은 상태였음
- 즉, 중국에서 혹은 중국으로 상품을 수출입할 경우, 바지선이나 철도 등으로 환적해야 하는 등 화물 운송에 불편을 겪어야 했음
- 이 같은 상황에서 철도가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 건설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화물 운송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임

김엄지 전문연구원,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·극지전략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eastrussia.ru/news/zaversheno-stroitelstvo-zheleznodorozhnogo-mosta-v-kr/>
(2022.5.5. 검색)

P&G, 러시아 시장 판매가격 40% 인상

■ 물류비용 및 자재비용 상승, 루블화 가치 하락 등이 원인^{a)}

- 미국의 대표적인 생활용품 제조기업인 P&G(Ariel, Fairy, Pampers, Gillette 브랜드)는 물류 및 자재비용 상승, 루블화 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러시아 시장 내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40%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
- P&G는 그러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폴란드에서 러시아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물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함
- 러시아 경제지 Kommersant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, P&G 제품을 취급하는 현지 유통업체들은 3월 15일 이후로 제품 판매 평균 43% 인상할 것이라는 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
- 이에 세탁용 세제 30%, 기타 세제 26%, 전문 청소제품 74%, 어린이 위생용 제품 47%, 여성 위생용 제품은 33%, 미용 및 건강제품은 67%, 헤어 케어 제품은 63%, 구강 관리 제품은 58%, 면도 제품은 약 65% 가격이 인상될 예정임

■ P&G, 러시아 신규 투자 중단하고 기존 2개 공장만 가동

- P&G는 Ariel, Tide, Lenor, Fairy, Pampers, Always, Gillette, Head & Shoulders, Pantene, Blend-a-med 등 러시아에서 다양한 제품을 현지 생산하고 있으나,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했음
- 한편 최근 많은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 내 사업 중단 및 투자동결 등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기존 재고상품에 대해서도 공급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, 코카콜라의 경우 3월 14일부터 콜라 15%, 주스 19%, 커피 30%씩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공지하였음

전명수 교수,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
(msjeon1976@gmail.com)

대러 제재, 러시아 미용 산업에도 영향

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품 가격 상승이 아니라 물류 문제로 한 제품 공급 차질^{a)}

- 러시아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글로벌 미용제품 시장의 약 15%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시장 규모가 약 30%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
- 러시아에서 주사용 미용 제품 시장은 약 80~90%가 수입품이 차지하는 가운데 주요 공급 국가는 프랑스, 영국, 이탈리아, 스위스, 독일, 미국 등 서방국으로 알려짐
- 주사형 미용, 미용치료, 하드웨어 미용, 성형수술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러시아 미용 시장에서 최근 3~5년 동안 고급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해, 관련 시장 규모가 전반적으로 20~30% 성장했음
- 한편 러시아 외과 의사의 약 2/3가 미국산 임플란트를 진료에 사용하는 가운데 최근 환율상승으로 유통업체의 비용이 최소 30% 증가했음
- 이에 시장에서는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브라질, 독일, 영국 프랑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커지고 있음

■ 일부 공장, 원료의 수입대체 추진하면서 특정 품목 생산량 확대 방안 모색^{b)}

- 예컨대,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화장품 공장 'Nevskaya Kosmetika'는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원료의 수입대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, 원료의 수입대체만 이뤄진다면 특정 품목의 생산량을 2~3배 늘릴 수 있다고 밝혔음
- Nevskaya Kosmetika는 비누, 치약, 크림 등 7가지의 생필품을 포함한 총 25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, 생산 원료의 60%를 유럽에서 수입하였기에 새로운 원자재 공급업체를 모색하고 있음.
- 공장 관계자는 138년의 역사 동안 단 4개월의 유희 기간을 기록한 공장의 역사를 떠올리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품 생산을 멈추거나 품질 수준을 떨어뜨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함.

전명수 교수,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
(msjeon1976@gmail.com)

참고자료

a) www.forbes.ru(2022.5.4. 검색)

b) <https://gazeta.spb.ru/2479210-zavod-nevskaya-kosmetika-gotovitsya-uvelichit-proizvodstvo-v-3-raza/>(2022.5.4. 검색)

러시아, 컴퓨터 장치 부족 사태도 대비

■ 앞으로 수개월 내 국가 정보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 (서버 및 스토리지) 부족에 적극 대비^{a)}

- 관계자에 따르면,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민간 데이터처리센터에서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한 해외 기업들의 IT 자원들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
- 러시아 언론 ‘Kommersant’가 인용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, 갑작스러운 대리제재로 인하여 중앙 및 지역 정부에서 충분한 물량의 IT 장비를 구입할 기회가 없었다고 함
- 또한 제재로 인해 일부 부처에서 사용하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가 힘들어지면서 추가 서버 용량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증가했다고 밝혔음
- 민간 데이터처리센터는 서방의 대체품인 중국 IT 장비 가격 상승, 전반적인 물류 애로사항, 외국 IT 기업들의 대리 장비 판매 거부 등 서방의 대리 제재가 야기한 복잡한 상황으로 정부 지원 여력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짐
- 공공 부문에서 매년 20% 이상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서버 및 스토리지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

전명수 교수,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
(msjeon1976@gmail.com)

러 건설 시장, 유럽 엘리베이터 공급 중단

■ 대러 제재 여파로 서방 기업이 엘리베이터 공급을 중단을 선언하며, 러시아 건설 업계는 유럽·미국산 엘리베이터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고 있으며, 일부 부품의 현지화 방안을 적극 모색⁶⁾

-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약 30%가 수입산이며, 유럽·미국 및 기타 서방 국가에서 13%, 벨라루스에서 약 15% 공급됐다고 밝힘
- 미국 엘리베이터 기업 Otis는 지난 3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러시아 내 신규 주문 접수를 중단을 발표했음
- 그러면서 Otis는 발표 시점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한 이행은 물론 고객을 위한 장비 유지·보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
- 현재 Otis는 전체 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 러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% 차지하고 있으며, 러시아에서 엘리베이터 생산을 현지화를 구축한 유일한 외국기업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음
- 지난해 러시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가운데 약 16%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Otis 제품이었음
- 러시아 최대 엘리베이터 제조회사이자 Otis의 주요 파트너 회사인 Shcherbinsky Elevator Building Plant는 러시아 공장 운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

■ 핀란드 엘리베이터 제조회업 KONE 역시 러시아 제품 배송 및 신규 계약 체결을 임시 중단을 선언

- 러시아 엘리베이터 협회에 따르면, 지난해 러시아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KONE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.5%였음

■ 독일 엘리베이터 제조회사 TK Elevator(구 Thyssenkrupp) 역시 러시아에서의 신계약 체결을 임시 중단함

- 지난해 TK Elevator가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한 엘리베이터 비중은 약 1%였음
- 러시아에서는 서구 회사에서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주로 쇼핑 및 비즈니스 센터, 고층 건물 및 중고가 주택, 상업용 건물에 사용하고 있음. 현재 러시아 건설업계는 한국, 중국, 터키 등 아시아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음

■ 러시아 건설회사 Granelle은 한국 엘리베이터 회사 Sigma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

- 또한 다른 러시아 건설회사들 또한 중국과 터키 회사로부터 제품 구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

전명수 교수,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
(msjeon1976@gmail.com)

참고자료

e) https://www.rbc.ru/business/21/03/2022/62348ff79a7947e25cb00eb0?from=from_main_5(2022.5.4. 검색)

조지아 포티, 흑해 대체 항만으로 뜬다.

그림. 조지아 포티(Poti) 항



자료: <https://www.silkroadbriefing.com/news/2022/04/05/georgias-poti-black-sea-port-to-get-major-infrastructure-expansion-overhaul/>

■ 조지아 항만 시설에 대한 북유럽 및 중국 투자 지분이 250% 상승^{a)}

- 이라클리 다넬리아(Irakli Danelia) 시랜드 머스크(Sealand Maersk) 흑해 지역사업부 부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항만시설의 파괴로 조지아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 지분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
- 과거 우크라이나 항만들은 흑해 지역의 해운업의 37%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고, 러시아 흑해지역 최대항인 노보로시스크(Novorossiysk) 항 또한 제재로 인해 가동이 원활치 않은 가운데 사업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지아 항만으로 집중된 것임
- 또한 다넬리아 부장은 기존 트랜스시베리안 물류회랑(Trans-Siberian Corridor) 이용 고객들이 조지아를 비롯한 여러 다른 국가들을 거쳐야 하는 새로운 종합 물류 회랑을 활용하는 데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
- 조지아 항만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처리되었던 물동량을 감당하기 위한 심해 항만(Deep sea Port)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
■ 머스크 시랜드 사는 포티 항의 물류 터미널 증설 계획을 발표^{b)}

- 신규 터미널은 옛 포티 조선소 자리에서 2022년 말 착공되어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. 터미널 부지 및 수역 규모는 총 25헥타르로, 연간 5000만 톤/ 200만 TEU의 화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음. 사업은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은 총 1억 2000만 달러 규모로 예상되고 있음
- 포티 항은 바투미(Batumi) 항과 더불어 조지아의 중요한 항만으로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여 카스피 해를 통해 카자흐스탄을 통해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통해 극동으로 물류를 운송할 수 있으며,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남쪽 루트로도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

조용성,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

(mirinae2929@gmail.com)

참고자료

a) <https://agenda.ge/en/news/2022/952> (2022.5.3. 검색)

b) <https://www.silkroadbriefing.com/news/2022/04/05/georgias-poti-black-sea-port-to-get-major-infrastructure-expansion-overhaul/> (2022.5.3. 검색)



주요 통계



표. 2022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화물 및 액체화물)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21/2022 증감율**
극동지역	11.4(-1.3%)	6.8(+4.8%)	18.2	+0.9%
북극해	1.3(-12.9%)	6.3(+11.0%)	7.6	+4.3%
발트해	6.8(-11.3%)	11.8(+13.9%)	18.6	+2.3%
아조프-흑해	8.2(+2.9%)	10.5(+2.7%)	18.7	+0.3%
카스피해	0.2(-12.9%)	0.2(-44.6%)	0.4	-32.8%
합계	27.9(-5.5%)	64.4(+7.3%)	63.5	+1.2%

* 주: 극동해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올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비츠키야가반, 데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얀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** 주: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

유지원 연구원,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·극지전략연구실
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참고자료

a) [https://portnews.ru/news/325191/\(2022.3.4. 검색\)](https://portnews.ru/news/325191/(2022.3.4. 검색))

b) [https://portnews.ru/news/326442/\(2022.3.24. 검색\)](https://portnews.ru/news/326442/(2022.3.24. 검색))

표.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
(단위: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01-24	식료품 및 원자재	488,113.1	58,574.3	2,160.9	3,514.4	490,274	62,088.7
25-27	광물 제품	631,154.4	24,174.4	40,838	53,606.2	671,992.3	77,780.5
27	연료 및 에너지 제품	497,367.4	20,609.1	511	0.1	497,878.4	20,609.2
28-40	생고무 화학 제품	4,374	79,626.6	1,178.4	870.8	5,552.4	80,497.6
41-43	가죽원료모 피 제품	8.6	2,080.9	9.1	200.9	17.7	2,281.8
44-49	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90,615	10,273.9	415	269.5	91,030	10,543.4
50-67	섬유·섬유제 품 및 신발	399.6	48,443.3	65.7	1,446.8	465.2	49,890.1
72-83	금속 및 금속 제품	56,410.9	80,556.7	2,000.8	5,604.8	58,411.6	86,161.4
84-90	기계류	112,094.9	564,415.5	6,905.6	6,888.9	119,000.5	571,304.3
68-71, 91-97	기타	313,063.1	63,036.7	47,434.9	498.9	360,498	63,535.7
	합계	1,696,233.6	931,182.4	101,008.4	72,901.3	1,797,241.9	1,004,083.7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유지원 연구원,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·극지전략연구실
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참고자료

a) [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\(2022.2.9. 검색\)](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(2022.2.9. 검색))

표.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

(단위: 톤,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		CIS**				합계			
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
0302	냉장수산물	0	0	-	-	-	-	-	-	0	0	-	-
0303	냉동수산물	98,846	233,521.7	1,005	3,244.7	19	24.2	-	-	98,865	233,545.9	1,005	3,244.7
03031	연어	11,304	48,018	-	-	0	0	-	-	11,304	48,018	-	-
030331	광어	541	4,466.6	-	-	-	-	-	-	541	4,466.6	-	-
030332	가자미	677	600.6	-	-	0	0	-	-	677	600.6	-	-
030339	기타 넙치류	619	493.2	-	-	0	0	-	-	619	493.2	-	-
030351	청어	12,992	3,628.8	-	-	0	0	-	-	12,992	3,628.8	-	-
030363	대구	5,426	17,870.4	-	-	0	0	-	-	5,426	17,870.4	-	-
03036 70000	명태	45,483	48,269	-	-	19	24.2	-	-	45,502	48,293.2	-	-
03038 93	농어	0	0	-	-	-	-	-	-	0	0	-	-
030391	알류	3,548	97,869.6	-	-	0	0	-	-	3,548	97,869.6	-	-
030399	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	531	986.9	-	-	-	-	-	-	531	986.9	-	-
0304	생선 필레	3,720	11,982.8	48	189	0	0	-	-	3,720	11,982.9	48	189

0305	훈제 생선, 생선 가루	0.2	1.9	46	274	-	-	-	-	0.2	1.9	46	274
0306	갑각류	5,696	198,497.2	79	575.8	-	-	-	-	5,696	198,497.2	79	575.8
030614, 030633, 030693	게	5,244	190,837.8	-	-	-	-	-	-	5,244	190,837.8	-	-
0307	조개류	4,768	14,594.5	-	-	0	2	-	-	4,768	14,596.6	-	-
03072	가리비	271	496.4	-	-	-	-	-	-	271	496.4	-	-
03074, 03075	오징어 및 문어	4,041.4	11,028.2	82	441.9	0	0	-	-	4,041.4	11,028.2	82	441.9
0308	수생 무척추 동물*	1,667	4,167.9	-	-	-	-	-	-	1,667	4,167.9	-	-
03081	해삼	487	1,227.9	-	-	-	-	-	-	487	1,227.9	-	-
03082	성게	993	2,891.7	-	-	-	-	-	-	993	2,891.7	-	-

* 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 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유지원 연구원,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·극지전략연구실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참고자료

a) <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>(2022.2.9. 검색)